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 (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 (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리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 (3)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 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은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은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은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9월 9일 (월) 기도 담당 : 우도현 집사

2019년 9월 7일 (토)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442장 다 같 이
기 도 이윤익 집사
성 경 봉 독 에스겔 23:11-15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타산지석의 신앙관』 김명자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66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에스겔 23:11-15>

11.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젖느니라 12. 그가 그의 이웃 앓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13.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14.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15.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싸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9월 7일 (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늘 나아오는 이 자리지만,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새벽을 깨우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택한 백성,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백성들이 죄 중에 거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셔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의 죄 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면서, 죄를 떠나 의에 거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132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새문안교회를 인도해 오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케 하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이 예배당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며, 이 민족의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등대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보완, 보수해야 할 부분들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부족한 건축헌금도 채워지게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헌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풀어 나가실 수 있는 지혜를 더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짐으로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제 식민지, 민족동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조국에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시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지만, 작금의 조국의 현실은 방자하기 그지 없는 백성들의 민낯을 보게 합니다. 이 현실을 어찌해야할지.....하나님 저희들은 무력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저희들의 자손들이 대한민국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가, 참담한 조국의 현실이 우리의 영적 책임임을 인식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